

<유엔마약범죄사무소>

<Win-Win>

식약처-UNODC, 마약 대응 윈-윈 위해 맞손!

- 식약처-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상호협력 증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신종 마약류 정보 공유 체계 강화, UNODC의 전문성 국내 적용 위한 협력
- 식약처 구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UN 통해 해외로
- 오스트리아 마약중독재활센터 방문, 재활 역량강화 협력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전세계 마약 예방·범죄대응·재활 등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인 유엔 산하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국내·외 마약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 1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UNODC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불법마약, 국제 범죄 문제 등의 대응을 위하여 '97년 설립된 유엔사무국 산하 조직

이번 방문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간 마약사범이 23% 증가*했고, 우리 정부도 최근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는 등 국내·외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양 기관이 상호 경험과 역량을 공유해 마약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출처) UNODC '23 World drug report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 UNODC 측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마약류 예방·재활 등에 관한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으며, 이번 방문에서 양측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명시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 신종 마약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UNODC가 보유한 세계 각국의 마약류 안전 관리부터 중독 재활까지 경험과 기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식약처가 국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활용 중인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UNODC가 인정하고 이를 마약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해 식약처는 2024년부터 이를 신규사업(해외원조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마약류 취급全过程(제조수입유통사용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

-
- ▶ (사업내용) 글로벌 표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마스터 플랜 수립 및 구축·운영 지원
 - ▶ (사업기간) 2024년 ~ 2026년
 - ▶ (사업계획) ('24년) 시스템 설계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 ('25년) 시스템 적용 및 인프라 지원
→ ('26년) 시스템 활용(고도화), 효과분석 / 태국 우선실시
-

참고로 식약처는 우수한 식의약 행정시스템을 전파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식품 안전관리 체계가 집약된 ‘식약처 식품 정보시스템’을 베트남 실정에 맞는 ‘식품안전 정보시스템’으로 구축·지원해 주는 사업을 이미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양해 각서 체결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마약 문제에 대해 국제기구와 함께 적극 협력하며 상호 발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가 구축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해외 국가에 구축·지원할 수 있게 돼 우리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좋은 기회”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전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유경 처장은 마약류 문제가 국민의 일상에 점점 깊이 파고들고 있고 이로 인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보다 나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중독재활센터(Schweizer Haus Hadersdorf, SSH)*를 방문했습니다.

* 1998년 설립된 중독 장애에 대한 입원 및 외래 치료를 위한 비영리 단체, 의료-정신과 치료 및 사회 복지 지원을 통해 중독자를 지원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미국 뉴욕 소재 마약중독재활센터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 방문에 이어 유럽의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사업이 운영되는 현장을 살펴보고, 국내 적용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오스트리아 중독재활센터 방문이 국내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외 마약류 안전관리와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에 적극 대응해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주요 방문 내용

담당 부서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주 (043-719-2808)
		담당자	사무관	송현숙 (043-719-2804)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현경 (043-719-1551)
		담당자	사무관	주진영 (043-719-1552)



① 식약처-UNODC 업무협약(MOU)

- 일시/장소: '23.9.14.(목), 오스트리아 비엔나
- 주요 내용: 마약류 분야의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처-UNODC 양해각서 체결 및 향후 추진사업 논의
- 참석자: Ghada waly(UNODC 사무총장), Justice Tettey(UNODC 부장) 등



② 오스트리아 중독재활센터 방문

- 일시/장소: '23.9.14.(목), 오스트리아 비엔나
- 주요 내용: 오스트리아 중독 치료 및 재활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 및 재활 프로그램 국내 도입 방안 모색
- 참석자: 바바라 슈웨더 게젠허브(재활센터 상무이사), Jean-Luc Lemahieu(UNODC 국장), 지오반나 캄펠로(UNODC 과장)

